

『논어정의』는 어떻게 집필하였는가*

— 고증학적 연구방법으로서의 장편(長編)

김 효 신**

[초 록]

청대 학자들은 고증학이라는 학문방법을 통해 고대의 문명과 사회의 실상을 철저하게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18세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학문방법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성과물의 축적은 학술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대 학자들은 경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존 경전 텍스트의 혼란과 한계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고염무 이래 청대 학자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경전 해석에 대하여 ‘찰기(札記)’와 같은 글쓰기 형식을 이용하여 국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렇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또한 이 논문은 2017년 12월 2일 한국교통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논어정의』는 어떻게 집필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초고형식으로 구두 발표한 바 있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주제어: 『논어정의』, 유보남, 유공면, 장편, 찰기, 고증학
『論語正義』, 劉寶楠, 劉恭冕, 長編, 札記, 考證學

게 축적된 학술적 성과에 기반하여 기존의 경전 해석의 틀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재구축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유보남의 『논어정의』이다.

청대 학자들이 기존 경전 주석에 대해 품었던 불만 중 하나는 기존의 주석들이 서로 모순적이기까지 한 여러 기술들을 별다른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않은 채 번잡하고 조리 없이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보남은 ‘장편’(長編)이라는 집필방식을 택한다. 장편이란 경전의 해당 부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거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다시 조리에 맞추어 해석의 틀을 구축한 결과가 바로 『논어정의』의 집필 방법이자 청대 고증학의 기본적인 학술 방법이었다.

1. 서론

유보남(劉寶楠)¹⁾의 『논어정의』(論語正義)는 『논어』 경문(經文)과 하안(何晏)의 집해(集解)를 함께 해설하는 ‘소’(疏)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주석서이다.²⁾ 『오경정의』(五經正義) 이래 당송대(唐宋代)에 걸쳐 확립

-
- 1) 유보남(1791-1855): 강소성(江蘇省) 보응(寶應) 출신으로, 자(字)는 초정(楚楨)이고 호(號)는 염루(念樓)이다. 5살 때 아버지를 여읜 후 저명한 경학가이자 양주(揚州)학파의 대표 인물인 숙부 유태공(劉台拱, 1751-1805)에게서 수학하면서 연구태도 및 학술방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논어정의』에서도 유태공의 『논어병지』(論語駢枝)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유보남은 일반적으로 유문기(劉文淇, 1789-1854)와 함께 ‘양주이류’(揚州二劉)로 병칭되었다(『淸史稿』 「儒林傳」 참조). 저작으로는 『석곡』(釋谷)·『한석각』(漢石刻)·『설문잡저장편』(說文雜著長編)·『보응도경』(寶應圖經)·『성조순양록』(聖朝殉揚錄)·『문안제공록』(文安堤工錄)·『유우록』(愈愚錄)·『염루집』(念樓集) 등이 있다. 유보남의 사적은 『淸사열전』(淸史列傳) 권69; 『淸사고』(淸史稿) 「유림전」(儒林傳); 대망(戴望)이 쓴 「고삼하현지현유군사장」(故三河縣知縣劉君事狀)(『續碑傳集』 권73)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2) 일반적으로 한대(漢代)나 진대(晉代)에 확립된 ‘주’보다 조금 후대의 주석을 ‘소’라고 한다. ‘소’에 대해서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소통하다”[通也]라는 뜻으로

된 경전 주소본(注疏本)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대(清代)의 학자들은 여러 신소(新疏)를 편찬하였는데, 『논어정의』도 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소’의 형식을 갖춘 주석은 대체로 기존 주석의 성과를 폭넓게 흡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논어정의』 역시 한대(漢代)의 구설(舊說)을 모으고 송대(宋代)의 여러 학설을 더한 후, 당대[淸] 여러 학자들의 새로운 해석·관점·고증자료를 대량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용한 여러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합리적 해석을 채택하는 것이 『논어정의』의 대체적인 서술 형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案)의 형태를 덧붙여 자신의 생각을 더욱 본격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하기도 한다.³⁾

일반적으로 『논어정의』는 청대 『논어』 연구의 집대성이며, 경학 저술의 대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⁴⁾ 특히 고대의 언어·문자·판본·목록·교감·변위·집일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인물·역사적 사실·연

풀이하고 있다. 의미가 잘 흐르도록 소통한다는 뜻이다. ‘주’와 ‘소’의 역할은 얼핏 비슷하게 보이지만, 주석대상의 범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경전의 뜻을 부연한 ‘주’를 다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 ‘소’의 역할이다. 이 때문에 ‘소’는 경문과 함께 주문(注文)까지 주석하는 형태를 띤다. 일반적으로 남북조(南北朝)·수(隋)·당(唐)·송대(宋代)에 성립한 주석서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공영달(孔穎達)의 『오경정의』가 ‘소’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일지록』(日知錄)에 따르면, ‘전’(傳)·‘전’(箋)·‘해’(解)·‘학’(學) 등은 모두 ‘주’의 범주에 속하고, ‘정의’(正義) 등과 같은 것은 ‘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日知錄』 권81 「十三經注疏」 참조).

3) 유보남은 『논어정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대개 다양한 인용의 연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자신의 주장을 직접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때는 대체로 ‘안’의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안’은 바로 이 논문 4장 “장편: 『논어정의』의 자료정리 작업”에서 논의할 ‘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淸儒學案』 卷106 「端臨學案」, “所著『論語駢枝』, 精深諦確, 能發先儒所未發. 楚楨叔俛父子繼之, 遂成『論語正義』一書, 尤稱有功經訓. 有淸一代, 治『論語』學者, 蓋以劉氏爲集大成.”; 『續修四庫全書提要』, “其書博洽, 固爲治論語之學所鑽研莫盡者.”; 張舜徽 『淸代揚州學記』; 周子同 『周子同經學史論』; 梁啓超 『淸代學術概論』 등 참조.

대·명물·제도·천문·지리·역산·악률 등 자연과 사회, 시간과 공간 등 여러 측면에서 치밀한 고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추론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여 기존 주석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매우 많다.⁵⁾

이러한 『논어정의』의 장점을 청대 건가학술의 대표적인 학파인 오파(吳派)나 환파(皖派)를 뛰어넘는 양주학파(揚州學派)의 특징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학술 영역을 구축한 오파와 정밀한 분석이 뛰어난 환파를 통합하여 계승한 양주학파는 청대 학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⁶⁾ 양주학파의 학문적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저작이 바로 『논어정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어정의』는 『논어』에 관한 역대 주석 가운데 그 성취도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논어정의』는 전체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권까지는 『논어』에 대한 한위(漢魏) 고주(古注) 및 청대까지의 다양한 주석과 설명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다루고 있다. 24권은 하안(何晏)의 『논어집해』(論語集解) 서(序)에 대한 소증(疏證)과 송상봉(宋翔鳳)의 『정현논어서일문』(鄭玄論語序逸文)에 대한 세밀한 소증을 수록하고 있다. 『논어집해』 서와 『정현논어서일문』에 대한 소증은 『논어』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집성이다.

5) “言必有據，各章之疏，破注居半。”(龔霽芑(2006), 『『論語正義』의學術成就』, 『孔子研究』 3).

6) 張舜徽『清儒學記』「揚州學記」8: “論清代學術，以爲吳學最專，徽學最精，揚州之學最通。無吳皖之專精，則清學不能盛。無揚州之通學，則清學不能大。然吳學專宗漢師遺說，屏棄其他不足數，其失也固。徽學實事求是，視夫固泥者有間矣，而但致詳於名物度數，不及稱學大義，其失也褊。揚州諸儒，承二派以起，始由專精滙爲通學，中正無弊，最爲近之。夫爲專精之學易，爲通學則難。…揚州學者治學的特點，首先在於能‘創’，像焦循的研究『周易』，黃承吉的研究文字，都是前無古人，自創新例。其次在於能‘通’，像王念孫的研究訓詁，阮元的研究名物制度，汪中的辨明學術源流，都是融會貫通，確能說明問題，這都是吳皖兩派學者們所沒有，而是揚州諸儒所獨具的精神和風格。”

『논어정의』는 일반적으로 권제(卷題) 아래 있는 서명에 따라 권17까지는 유보남이 직접 찬술하였고, 뒤의 7권은 유보남이 작성한 장편(長編)을 기초로 아들 유공면(劉恭冕, 1826?-1885)이 찬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논어정의』의 최초 판각본은 청 동치(同治) 5년(1866)의 간본이며, 이후 이 초간본에 의거해 번각 혹은 활자화된 황청경해속편본(皇淸經解續編本), 사부비요본(四部備要本), 만유문고본(萬有文庫本), 제자집성본(諸子集成本), 국학기본총서본(國學基本叢書本), 고류수(高流水)의 교감과 표점 작업을 거친 중화서국(中華書局) 『십삼경청인주소』(十三經淸人注疏)본이 있다.

청대 경학 관련 저작들은 그 수량이 매우 많으며, 체제 또한 각기 다르고 연구의 방향 역시 매우 다양하다. 특히 문자의 훈고, 명물이나 제도의 고증에 뛰어난 청대 학술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저작들은 그 주석내용의 시비 판단을 떠나 현재까지도 자료적 가치 측면에서 학술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다. 유보남의 『논어정의』 역시 전대(前代)의 연구 성과를 흡수하여 한위고주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고증으로 『논어』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유보남이 『논어정의』를 집필하는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이에 관련한 청대 학술문화의 독특한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학이」(學而)와 「위정」(爲政)을 중심으로 『논어정의』의 주된 서술 형식인 ‘인용’의 면모와 방식을 자세히 고찰하고, 고증학적 연구에서 핵심적 작업인 ‘장편’(長編)과 ‘찰기’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7) 권1(「學而」)부터 권17(「憲問」)까지의 원간본(原刊本) 권제(卷題) 아래에는 “보응유보남학”(寶應劉寶楠學)이라고 서명(署名)이 있으며, 권18(「衛靈公」)에서 권24(何晏의 『論語集解』序)까지의 아래에는 “공면술”(恭冕述)이라는 서명이 있다; 劉文興, 『劉楚楨先生年譜』, “十七卷後, 乃叔俛先生就先生原輯稿編次, 間有所增, 故署以‘述’.”

2. 1828년, 학우들 사이의 약속

유공면의 『논어정의』 「후서」(後敍)에 따르면, 유보남이 『논어정의』를 집필하게 된 계기는 1828년 향시였다. 유보남은 향시를 보기 위해 남경에 모였던 동료 학자들과 경전에 대한 학술적 토론을 나누다가 각각 경전을 분담하여 소증을 붙이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당시 유보남과 동료 학자들은 왜 새로운 소증을 집필하기로 의기투합하였을까.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주소본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대(漢代) 학자들의 주석 가운데 오직 정현(鄭玄)만이 예제(禮制)를 잘 알았으며, 또한 노론(魯論)을 취하면서도 제론(齊論)과 고론(古論)을 함께 고찰하여 주를 지었다. 이 때문에 정현의 선택한 내용이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위(魏) 하안(何晏)의 『집해』(集解)⁸⁾는 정현의 주를 삭제하거나 빼버린 경우가 많고, 오히려 왕숙(王肅)이 위조한 공안국(孔安國)의 해설을 남겨두어 기대고 있다.⁹⁾ 이는 잘못이다.

양대(梁代) 황간(皇侃)¹⁰⁾은 『집해』를 바탕으로 소를 달았는데, 여기에 수록한 위진 학자들의 견해는 대부분 청현(淸玄)에 관련된 것으로서, 궁실이나 의복 및 여러 예제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송대 형병(邢昺)¹¹⁾은 황간의 『의소』를 기본으로 하여 따

8) 『논어집해』: 현재 『논어』에 대한 삼국 이전의 구주(舊注)는 모두 일실되었지만, 하안의 『집해』에는 한대 팔가주(八家注)를 상당히 보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논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청대학자들은 하안의 『집해』가 현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논어』를 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학의 정통이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9) 유보남은 공안국의 『논어주』를 왕숙(王肅)의 위서라고 판단하였다.

10) 『논어의소』: 송대에 이미 일실되었다가 청 건륭(乾隆) 연간에 일본에서 전승되던 것을 역수입한 것이다. 이 책은 남조 경학을 연구하는 주요저작이며, ‘의소’의 체제를 볼 수 있는 저작이다.

로 소를 달았는데, 문자만을 따라서 뜻을 풀이하여 취할 만한 것이 더욱 없다.

청조에서는 실학을 숭상하고 경술이 번성하여, 『논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설명은 훌륭하여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논어의 경문과 주문을 총체적으로 해설한 ‘소의’(疏義) 형식의 저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¹²⁾

유보남은 당시 통용되던 『논어』에 대한 주석 혹은 해설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하안의 『논어집해』는 한대의 주석을 모아놓으면서 그 주석의 취사선택에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정현이 택하지 않았던 공안국의 해석이나 왕숙에 의해 위조된 설을 『논어집해』에 남겨둠으로써 『논어』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였다.

둘째, 황간의 『논어의소』와 형병의 『논어정의』는 『논어집해』를 저본으로 하여 소를 작성하였는데, 현학으로 의미를 풀이하거나 혹은 글자만을 따라 의미를 풀이하여 경전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고 있지 못했다. 더욱이 예악(禮樂)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고증도 없어서 학술적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

셋째, 청대 고증학의 부흥과 함께 『논어』를 연구할 수 있는 많은 기초 지식들이 축적되고 정밀한 고증을 진행하고 있는 저술이 작성되었으나 『논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세밀한 주해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요컨대, 유보남이 생각하기에 『논어』는 정현 이래로 계속해서 오염되

11) 『논어정의』: 북송의 형병은 한학과 송학의 과도기적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은 형병의 『논어정의』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12) “漢人注者, 惟康成最善言禮, 又其就魯論, 兼考齊古而爲之注, 知其所擇善矣. 魏人集解, 於鄭注多所刪佚, 而僞孔王肅之說, 反藉以存, 此其失也. 梁皇侃依集解爲疏, 所載魏晉諸儒講義, 多涉清玄, 於宮室衣服諸禮闕而不言. 宋邢昺又本皇氏, 別爲之疏, 依文衍義, 益無足取. 我朝崇尚實學, 經術昌明, 諸家說論語者彬彬可觀, 而於疏義之作, 尙未遑也.”

었으며, 이것은 『논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만들이 유보남이 『논어정의』를 집필한 동기이자, 동료학자들과 여러 경전을 분담하여 소증 작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배경이다. 진립(陳立)이 작성한 「논어정의서」¹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광 무자년(1828) 가을, 내가 유맹첨[劉文淇, 1789-1854]·매은생[梅植之, 1794-1843] 두 스승을 따라 유초정[劉寶楠]·포맹개[包慎言, 생몰년미상] 두 선생과 함께 향시[鄉闈]를 치러 갔다. 맹첨 스승님과 초정 선생은 십삼경의 구소(舊疏)가 뒤섞이고 혼란스러운 점을 마음 아파하였다. 그리하여 강씨¹⁴⁾와 손씨¹⁵⁾가 『상서』에 대해, 소씨¹⁶⁾와 학씨¹⁷⁾가 『이아』에 대해, 초씨¹⁸⁾가 『맹자』에 대해 따로 소의를 지었던 것을 본받고자 하였다. 맹첨 스승은 『좌씨전』을 맡았고, 초정 선생은 『논어』를 담당했으며, 『공양』은 내가 담당했다.”¹⁹⁾

함께 과거시험을 치러갔던 유문기와 유보남은 당시 십삼경의 소가 뒤섞이고 혼란한 사실에 대해 논의하며 탄식하다가, 결국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존의 해설을 바로잡고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작을 집필하기로 결의한다. 당시 완성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

13) 진립의 서는 『논어정의』 초간본에는 있으나, 중화서국 『십삼경청인주소』본에는 빠져 있다.

14) 강성(江聲, 1721-1799)의 『상서집주음소』(尙書集注音疏)를 말한다.

15) 손성연(孫星衍, 1753-1818)의 『상서금고문주소』(尙書今古文注疏)를 말한다.

16) 소진함(邵晉涵, 1743-1796)의 『이아정의』(爾雅正義)를 말한다.

17) 학의행(郝懿行, 1755-1823)의 『이아의소』(爾雅義疏)를 말한다.

18) 초순(焦循, 1763-1820)의 『맹자정의』(孟子正義)를 말한다.

19) “道光戊子秋, 立隨劉孟瞻、梅蘊生(植之)兩師, 劉楚楨、包孟開(慎言)兩先生赴鄉闈。孟瞻師, 楚楨先生病十三經舊疏多踳駁, 欲仿江氏、孫氏『尙書』、邵氏、郝氏『爾雅』、焦氏『孟子』, 別作疏義。孟瞻師任『左氏傳』, 楚楨先生任『論語』, 而以『公羊』屬立。”

있던 『상서집주음소』·『상서금고문주소』·『이아정의』·『이아의소』·『맹자정의』 등과 같은 저술에 고무되어, 『논어』나 『좌전』에 대해서도 유사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확신과 용기를 얻었다. 더욱이 이들은 건가시기를 거치면서 축적된 문자의 혼고 및 교감, 전장제도 등에 대한 다양하고 정밀한 고증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논어』의 경우는 혜동(惠棟)·진전(陳鱣)·장용(臧庸)·송상봉(宋翔鳳) 등이 각각 집일한 정현의 주석도 이용할 수 있었다.

위에 인용한 진립의 글을 통해, 유보남과 동료학자들은 『논어』 뿐만 아니라 당시 유통되던 경전 주소본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청대 새로 나온 소들이 있었지만, 아직 그것은 『상서』와 『이아』, 『맹자』 등 일부였기 때문에 다른 경전 역시 상세한 소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을 유보남과 그의 동료학자들만이 느낀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황승길(黃承吉, 1771-1842)이 작성한 「맹자정의서」의 내용이다.

하루는 왕진번[汪中, 1745-1794] 문학의 집에서 리당[焦循, 1763-1820]과 함께 각 경의 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누었다.

북송(北宋) 손석(孫奭)의 『정의』는 단지 전주(傳注)의 설만을 묵수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널리 모아서 종합하지 못하고 있다. 옳은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른 것을 바로잡을 수 없고, 하나를 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러 의문을 분명히 해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러한 예시가 비록 옳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각각 하나의 경을 담당하여 따로 정의(正義)를 저술하기로 약속하였다. 옛것과 현재의 것,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모두 하나로 꿰어 좋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종지를 잘 모아서, 공영달과 가공언이 쳐 놓은 울타리를 걷어내고 서씨(徐氏)나 양씨(楊氏)나 하는 학파적 편견을 돌파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당시 외람되게도 『주관』을 말았고, 초순은 『주역』과 『맹자』에 뜻이 있었다.²⁰⁾

이 글은 유보남과 그 동료학자들에게 자극을 주었던 청대 새로 나온 주석서 중 하나인 『맹자정의』를 집필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글이다. 황승길과 초순이 각자 소증을 작성하기로 하는 과정은 유보남과 친구들이 『논어정의』의 집필을 시작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기존 주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특정한 관점이 갖는 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각의 경전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참신한 소의의 집필을 결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추측해보자면, 당시 십삼경의 주소본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주소에 대한 열망은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듯하다. 특히 그러한 열정을 동료 학자들이 서로서로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사승관계를 주축으로 학술을 전수받는 형태가 아니라 학우관계를 주축으로 하여 연구를 함께 공유하고 진작했던 당시 양주학술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²¹⁾ 양주학술의 특징 중 하나로 사제중심이 아닌 학우중심의 집단이었다는 점을 드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학우중심이라는 분위기가 학자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뜻이 맞는 동료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828년 몇몇 학자들 사이의 결의를 계기로 집필하기 시작한 『논어정

20) 黃承吉, 『孟子正義序』, “憶一日在汪晉蕃文學齋中, 與里堂論及各經疏, 正義僅宗守傳注一家之說, 未能兼綜博采, 領是而非無以正, 舉一而衆蔑以明, 例雖如是, 實則未通. 乃相要各執一經, 別爲之正義. 以貫串古今異同, 蒐綱百善, 萃爲宗都, 破孔賈之藩籬, 突徐楊之門戶. 予時以周官竊任, 而里堂則謂易與孟子尤有志焉.”(『夢陔堂文集』卷5, 臺北: 文海出版社, 1967).

21) 풍건(馮乾)은 건륭시기 양주 일대의 오판과 휘파의 박학풍조를 계승하던 학자들의 집단을 양주학파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 집단은 사승관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학우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되어졌다고 설명한다. 사승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학파의 경우, 학파의 시조 및 계승자 등 그 학보가 존재하고, 학술의 계통을 수립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술 계통을 벗어나는 의론을 학파 내에서 추구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학우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된 집단은 그 주장이나 의론이 비교적 자유로워 새로운 의론을 내세우기 유리하다는 특징을 갖는다(馮乾(2005), 「清代揚州學派簡論」, 『史林』第2期 참조).

의』는 1866년 아들 유공면에 의해 판각되기까지 약 4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3. 40년의 집필과정: 유보남에서 유공면으로

유공면의 「후서」에서는 『논어정의』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²⁾

- (1) 유보남은 어려서 숙부인 유태공에게 치밀한 연구방법을 전수 받고 증거를 중시하는 엄밀한 학술적 태도를 체득하였다. 여러 전적을 정밀히 연구하면서 고향에서 여러 학자들과 많은 학술교류를 하였다.
- (2)道光 무자년(1828)에 성시(省試)에 응시하면서, 의징 유문기·강도 매식지·경 포신언·단도 유흥은(柳興恩, 1795-1880)·구용 진립(1809-1869) 등과 각각 하나의 경전을 연구하여 소증을 덧붙일 것을 약속하였다. 유보남은 『논어』를 맡았는데, 이때부터 다른 일들은 모두 멀리하고 오로지 『논어』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 (3) 초순의 『맹자정의』의 방법을 따라, 먼저 수십 권의 방대한 분량의 ‘장편’(長編)을 작성하였다.
- (4) 자신의 견해만을 주장하거나 한학이나 송학의 문호지견을 나누지 않고, 실사구시의 태도로 성현의 도를 드러내고 전례를

22) 『논어정의』 집필과정에 대해서는 『청사고』에도 「후서」와 비슷한 내용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寶楠於經，初治毛氏詩、鄭氏禮，後與劉文淇及江都梅植之、涇包慎言、丹徒柳興恩、句容陳立約各治一經。寶楠發策得論語，病皇、邢疏蕪陋，乃蒐輯漢儒舊說，益以宋人長義，及近世諸家，仿焦循孟子正義例，先爲長編，次乃薈萃而折衷之，著論語正義二十四卷。因官事繁，未卒業，命子恭冕續成之。”

- 증명하는 방법으로 장편을 종합하고 절충하면서 편집하였다.
- (5) 얼마 후 직에 문안현의 지현이 되었는데, 정무가 번다하고 기력이 조금씩 쇠해짐에 따라 아들 유공면에게 부탁하여 『논어정의』의 내용 가운데 빠진 부분을 보충하도록 시켰다.
 - (6) 유공면은 아버지의 명을 받은 것을 황송해 하면서 삼가 조심하며 편찬에 임하였는데, 함풍 을묘년(1855) 가을 거의 작업이 끝나갈 즈음에 유보남이 다리가 붓는 병에 걸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유보남은 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7) 병진년(1856) 이후, ‘태평천국과 2차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유공면은 『논어정의』가 유실될 것을 염려하여 초고를 다시 한 번 살피고 교정을 보면서 직접 선록(繕錄)하였다.
 - (8) 10년 후 을축년(1865) 가을에 선사(繕寫)를 마치고, 그 의례(義例)를 기술하여 권수에 첨부하였다.
 - (9) 유공면은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 이후에도 계속 정밀한 교감을 가하면서 자료를 보충하였다. 또한 『논어정의』의 집필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후서를 작성하였다.
 - (10) 동치 5년 병인(1866) 초각본 24권을 판각한다.²³⁾

23) 『論語正義·後敘』“先君子少受學於從叔端臨公，研精羣籍，繼而授館郡城，多識方聞綴學之士，時於毛氏詩、鄭氏禮注皆思有所述錄。(初著毛詩詳注，鄭氏釋經例，後皆輟業。)及道光戊子，先君子應省試，與儀徵劉先生文淇、江都梅先生植之、涇包先生慎言、丹徒柳先生興恩、句容陳丈立始爲約，各治一經，加以疏證。先君子發策得論語，自是屏棄他務，專精致思，依焦氏作孟子正義之法，先爲長編，得數十巨冊，次乃薈萃而折衷之，不爲專己之學，亦不欲分漢宋門戶之見，凡以發揮聖道，證明典禮，期於實事求是而已。既而作宰畿輔，簿書繁瑣，精力亦少就衰，後所闕卷，舉畀(恭冕)，使續成之。(恭冕)承命惶悚，謹事編纂，及咸豐乙卯秋，將卒業，而先君子病足瘡，遂以不起，蓋知此書之將成而不及見矣。傷哉！丙辰後，邑中時有兵警，(恭冕)兢兢慎持，懼有遺失，暇日亟將此稿重復審校，手自繕錄，蓋又十年，及乙丑之秋而後寫定，述其義例，列於卷首。繼自今但求精校，或更得未見書讀之，冀少有裨益。是則先君子之所以爲學，而(恭冕)之所受於先君子者，不敢違也。世有鴻博碩儒，幸不吝言，補其罅漏，正其迷誤，跂予望之。同

이 글에 따르면 『논어정의』는 유보남과 유문기·매식지·포신언·류흥은·진립 등의 학자들이 각각 경전을 분담하여 소증을 부치기로 한 약속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 유보남과 유공면 부자는 38년에 걸쳐 『논어정의』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유보남과 뜻을 함께 했던 다른 학자들은 각각 어떠한 경을 맡아서 작업했으며 어떠한 결과물을 남겼을까? 「후서」에는 학자들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을 뿐, 유보남 이외의 학자들이 담당했던 경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른 학자들이 담당했던 경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립의 「논어정의서」와 진립이 유문기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선생님과 초정[劉寶楠], 해암[梅植之] 두 선생들과 함께 금릉에 시험을 치러가서 저서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춘추좌씨전』을, 초정선생은 『논어』를, 해암선생은 『곡량』을, 그리고 저는 『공양』을 담당하여 연구하기로 했었지요.”²⁴⁾

이 편지에는 앞서 보았던 「논어정의서」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논어정의서」에서 진립은 유보남·유문기·매식지·포신언·진립이 함께 향시를 치르러 갔다고 기술하였으며, 유보남·유문기·진립이 분담하였던 경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매식지가 담당했던 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보남은 『논어』를, 유문기는 『좌전』을, 진립은 『공양전』을, 매식지는 『곡량전』을 담당해서 소증을 부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어정의서」에서 언급했던 포신언에 대한 설명은 이 편지에서는 빠져있다. 또한 진립의 기술과 유공면의 「후서」에서 등장하는 학자들에게도 차이가 있는데, 유공면

治五年歲次丙寅春三月, (恭冕)謹識.”

24) 「跋陳卓人上劉孟瞻先生書」, “猶憶前數年間, 隨夫子及楚楨, 嵇菴兩先生同試金陵, 立著書之約. 夫子任治春秋左氏傳, 楚楨先生任治論語, 嵇菴先生任治穀梁, 而以公羊屬立.”(劉師培, 『左龕題跋』).

의 「후서」에서는 진립이 「논어정의서」에서 기술했던 다섯 사람 이외에 류흥은이 등장한다. 즉 유공면의 「후서」에 따르면 총 여섯 명의 학자들이 함께 저술을 도모했고, 진립의 기술을 따르면 총 다섯 명 혹은 네 명의 학자들이 함께 저술을 도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홍삼(陳鴻森)은 각 학자들의 전기와 저술결과물 등을 통해 향시를 치기 위해 함께 간 사람들은 유공면의 후서에 등장하는 여섯 사람이지만, 이 중 저술을 약속한 사람은 진립의 편지에 등장한 유보남·유문기·매식지·진립 네 사람뿐 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²⁵⁾ 유공면이 시험을 함께 치러 간 사람들과 저술을 결의한 사람들을 몽똥그려 나열하였는데, 『청사고』나 『청사열전』 혹은 『논어정의』를 설명하는 공구서 등에서 역사적 고증 없이 「후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면서 마치 이 여섯 사람이 함께 저술을 결의한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저술을 마무리 지었을까. 주지하다시피 유보남은 말았던 『논어』에 대한 소증 『논어정의』를 아들과 함께 완성하였다. 『청사고』에 따르면 진립은 『공양의소』(公羊義疏) 76권을 남겼다.²⁶⁾ 매식지의 경우, 아들 매육(梅毓)까지 저술이 이어졌으나 『곡량정의장편』(穀梁正義長編) 1권만을 남겼다.²⁷⁾ 유문기는 아들 육승(毓崧)과 손자 수증(壽曾)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좌전』의 정의를 작성하였으나, 『좌씨전구주소증』(左氏傳舊注疏證)은 결국 양공 4년에서 그

25) 陳鴻森(1994), 「劉氏『論語正義』成書考」,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3期.

26) 『清史稿』“陳立, 字卓人, 句容人. …師江都凌曙, 儀徵劉文淇, 受公羊春秋, 許氏說文, 鄭氏禮, 而於公羊致力尤深. 文淇嘗謂漢儒之學, 經唐人作疏, 其義益晦. 徐彥之疏公羊, 空言無當. 近人如曲阜孔氏, 武進劉氏, 謹守何氏之說, 詳義例而略典禮, 訓詁. 立乃博稽載籍, 凡唐以前公羊古義及國朝諸儒說公羊者, 左右采獲, 擇精語詳. 草創三十年, 長編甫具. 南歸後, 乃整齊排比, 融會貫通, 成公羊義疏七十六卷.”

27) 『清史稿』“梅毓, 同治九年舉人, 候選教諭. 著有《穀梁正義長編》一卷.”

쳐 끝내 완성되지 못하였다.²⁸⁾

「후서」에서 유공면은 아버지 유보남이 정무가 바쁘고 체력도 쇠해져서, 자신에게 『논어정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하도록 시켰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이 저술을 마무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부분부터 본인이 이어서 찬술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권17까지는 유보남이 스스로 찬술하였고, 뒤의 7권은 유보남이 지은 장편을 기초로 유공면이 찬술하였다고 설명한다. 즉, 유보남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초고를 작성하였고, 유공면이 뒤의 7권에 대해서만 편집과 수정 혹은 보충을 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유보남이 진사가 되어 직예 문안현의 지현으로 제수 받은 때는 도광 20년(1840)이고,²⁹⁾ 이후 15년간의 관직생활을 지속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유보남이 죽기 직전 직접 쓴 「묘지」를 살펴보면 15년간의 관직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바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논어정의』는 유보남이 관직생활을

28) 일부 학자들은 유문기의 증손자인 유사배(劉師培, 유사배는 육송의 둘째 아들인 貴曾의 아들이다)가 조상들의 『좌전소증』 집필을 이을 뜻을 품고 있었으나, 일찍 죽게 되면서 유씨 집안의 『좌전소증』 연구가 중단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유사배가 이어서 『좌전소증』을 완성하였다면, 청대를 대표하는 수준급의 주석서 한 권을 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아쉬움을 표하곤 한다.

29) 『清史稿』 권482 「列傳·儒林」 8 “劉寶楠, 字楚楨, 寶應人。… 乾隆五十一年舉人, … 道光二十年成進士, 授直隸文安縣知縣。文安地稱窪下, 隄堰不修, 遇伏, 秋水盛漲, 輒爲民害。寶楠周履隄防, 詢知疾苦, 爰檢舊冊, 依例督旗屯及民同修, 而旗屯恆怙勢相觀望, 寶楠執法不阿, 功遂濟。再補元氏, 會歲旱, 縣西北境蝗, 蔓延二十餘里。寶楠禱東郊蜡祠, 蝗爭投阨井, 或抱禾不死, 歲則大熟。咸豐元年, 調三河, 值東省兵過境。故事, 兵車皆出里下。寶楠謂兵多差重, 非民所堪, 雇車應差, 給以民價, 民得不擾。寶楠在官十六年, 衣冠樸素如諸生時。勤於聽訟, 官文安日, 審結積案千四百餘事, 雞初鳴, 坐堂皇, 兩造具備, 當時研鞫。事無鉅細, 均如其意結案, 悖者照例治罪。凡涉親故族屬訟者, 諭以睦姻, 概令解釋。訟獄既簡, 吏多去籍歸耕, 遠近翕然, 著循良稱。咸豐五年, 卒, 年六十五。”

시작하면서부터 유공면이 주로 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유공면은 유보남이 죽기 몇 년 전이 아니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논어정의』의 저술에 관여하였을 것이다.

둘째, 유보남이 저술하였다고 하는 앞 17권에서 유보남 사후에 출간된 저작들이 몇 종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월(兪樾)의 『논어평의』(論語平議)와 같은 경우, 유월은 1858년 『평의』의 집필을 시작하였고, 1864년 완성하여 1867년 판각을 완성한다.³⁰⁾ 즉 유보남이 죽은 1855년 이후에야 집필이 시작된 저작이다. 대망(戴望)의 『논어주』(論語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논어주』는 1871년 3월에 판각이 완성되었다. 즉 유보남이 죽은 지 16년 후에야 세상에 나온 서적이다.³¹⁾

셋째, 『경의설략』(經義說略)을 인용할 때 저자인 유보남의 형 유보수(劉寶樹)에 대한 호칭의 변화이다. “선형(先兄) 오하군(五河君)”과 “선백부(先伯父) 오하군(五河君)”이 여러 편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유보남과 유공면 각 입장에서의 호칭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앞의 17권에서도 유공면의 증정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사실 유공면이 과연 『논어정의』 저술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담당했는지의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바로 유보남이 작성하였다는 ‘장편’을 그 최종 결과물인 『논어정의』와 비교할 수 있다면, 실제 『논어정의』의 편집원칙이나 주해원칙, 아울러 유보남의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유보남의 ‘장편’은 남아 있지 않다. 여러 학자들은 ‘장편’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지

30) 『논어평의』는 『군경평의』(群經平議) 중 『논어』와 관련된 유월의 『평의』를 일컫는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논어평의』의 집필과 완성시기, 판각시기는 『군경평의』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1) 이 외에도 정진(鄭珍)의 『윤역사전』(輪輿私箋)(1857년 완성, 1868년 판각), 진례(陳澧)의 『동숙유고』(東塾類稿)(1874년 판각) 등의 서적들이 17권 이전에 인용되고 있다.

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 현존 여부가 밝혀지지는 않았다.³²⁾

4. 장편(長編): 『논어정의』의 자료정리 작업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논어정의』는 이전 시기 『논어』에 관한 주석을 광범위하게 모았을 뿐만 아니라, 청대 여러 학자들의 새로운 주석과 다양한 고증자료를 다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논어정의』의 집필과정에서 당시 고증학적 성과의 방대한 축적이 없었다면 『논어정의』는 현재 수준으로 완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논어정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여러 자료들을 이용하였을까.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초순의 『맹자정의』³³⁾의 집필방식을 따라, 먼저 수십 권의 방대한 분량의

32) 『논어정의』의 앞 17권까지를 오로지 유보남 혼자 저술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 이자명(李慈銘)이 처음 의문을 제기하였다. 『월만당일기』(越縵堂日記)에서 이자명은 『군경정의』와 『논어주』를 언급하면서, 17권 이전에도 유공면의 보충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분량은 매우 적으며 약간의 보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권18 이후 유공면이 전적으로 말아서 기술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17까지의 정밀함과 광범위한 자료수집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아들이 아버지의 학식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근래 대만의 진홍삼은 『논어정의』가 실제 유보남보다 유공면의 저술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李慈銘, 『越縵堂日記』 光緒己卯(1879) 閏三月二十四日: “傍晚坐藤花下, 讀論語正義, 共二十四卷. 自十八卷衛靈公以下, 爲其子叔俛所續. … 然十七卷以前所引書, 有俞蔭甫郡經平議及戴子高論語注等書, 非楚楨所及見, 則亦有叔俛所增入者. 十八卷以下, 採取不及以前之博, 則學識又不及其父也.”; 陳鴻森(1994), 「劉氏『論語正義』成書考」,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3期.

33) 『맹자정의』는 『맹자』의 경문을 차례로 나열하고 전체 경을 통석하였는데, 당송의 구소(舊疏)를 공격하며 ‘소불파주(疏不破注)의 법을 내세웠다. 조기의 주 가운데 번다하고 의미가 순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그 의미를 밝혀, 글자의 훈고와 조리를 분명하게 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설이 있으면 논박하

‘장편(長編)’을 지었다’라는 구절이다.

초순의 『맹자정의』 30권은 1818년 초고를 시작하여 1820년에 완성하고, 그 후 수정과 교감을 거쳐 1825년에 판각된 『맹자』에 대한 주석서이다.³⁴⁾ 그런데 초순은 1818년 『맹자정의』의 집필을 시작하기 2년여 전인 1816년부터 아들 정호(廷琥)와 함께 역대 경사(經史)의 전주(傳注) 및 고염무를 비롯한 당대 60여 학자의 저작에서 『맹자』 및 조기(趙岐)의 주와 관련된 논술을 광범위하게 수집·정리하여 『맹자장편』(孟子長編) 14권을 편집하였다. 이 『장편』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맹자정의』이다.

여기서 우선 ‘장편’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편’은 원래 송(宋) 사마광(司馬光)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수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전국시기부터 송 건국 이전까지의 약 1,400년간의 역사를 300만자의 편폭에 기술하고 있는데, 매 해 평균 2,000자 내외의 글자 수를 유지하면서 집필의 목적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 사실만을 취사선택하고 있다.³⁵⁾ 사마광은 이러한 서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작업을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바로

여 바로잡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리기심성(理氣命性)은 대진(戴震)과 정요전(鄭瑤田)의 설을, 정전(井田)과 봉건(封建)은 고염무(顧炎武)와 모기령(毛奇齡)의 설을, 천문역산(天文曆算)은 매문정(梅文鼎), 이광지(李光地)의 설을, 지리수도(地理水道)는 호위(湖渭)와 염약거(閻若璩)의 설, 일서고증(逸書考證)은 강성(江聲)과 왕명성(王鳴盛)의 설을, 육서훈고(六書訓詁)는 왕념손(王念孫)과 단옥재(段玉裁)의 설을, 판본교감(版本校勘)은 완원(阮元)과 노문초(盧文弨)의 설을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뜻을 혼석할 때는 먼저 둘 내지 세 명의 학자들의 설을 인용한 후, 각 견해의 깊고 얕음, 지론의 분기, 증거의 득실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도광 5년(1825)의 가각본(家刻本), 『황청경해』본, 1987년 중화서국점교본이 있다.

34) 초순은 『맹자정의』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1820년 죽었다. 그 아들 정호가 이어서 교정하다가 역시 병으로 죽자, 초순의 동생 징(徵)이 이어서 교정을 마무리하고 판각하였다.

35) 장평(2016), 김영문 옮김, 『자치통감을 읽다』, 서울: 378, 13-18쪽 참조.

‘장편’이었다. 『자치통감』의 ‘장편’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건이나 관련 인물에 관한 사료나 논평을 최대한 수집한 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역사의 진상을 파악하는 작업이었다. 이후 ‘장편’은 역사서 뿐 아니라 일반 저작을 찬술할 때 기초자료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배치한 자료집성이나 초고본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다.³⁶⁾

이러한 ‘장편’의 방법을 이용한 『논어정의』나 『맹자정의』는 우선적으로 각 구절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시비나 진위를 막론하고 모두 모아 놓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본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으로 ‘장편’에서 모아놓은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저술을 완성하였다.

물론 사마광의 장편과 유보남 혹은 초순의 장편은 자료적 가치에서 차이가 있다. 『자치통감』은 역사 서술이기 때문에 그 ‘장편’ 자체만으로도 사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유보남이나 초순의 경우는 ‘장편’ 자체의 사료적 가치보다는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청대 유행했던 글쓰기 형식 중 하나인 ‘찰기’(札記) 혹은 ‘차기’(劄記)라는 형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장편’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찰기는 본래 저서가 아닌 읽은 책의 자료를 모아 놓는 일종의 독서노트로,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 느낀 것이나 참고할 것들을 그때그때 적어 놓는 것이다.³⁷⁾ 청대에는 이러한 찰기형식을 이용한 경전의 주석이 유행하였

36) 장편은 인물의 생애를 정리한 연보 등에서 그 서명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양계초연보장편』(梁啓超年譜長編)이나 『단옥재연보장편』(段玉裁年譜長編) 등과 같은 서적은 연대별로 주요사건, 혹은 주요출간저작 등과 함께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의 행적을 기술하고, 작가 본인의 논평을 더해 놓았다. 자료수집 및 편년체 기술이라는 특징을 그대로 제목에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37) 양계초는 청대의 학자들이 저서를 경솔하게 내놓지 않았던 학풍 때문에 우선 ‘차기’(劄記)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본을 내었다고 하여, 청대 ‘차기’ 형식이 유행하게 된 원인으로 시대의 학풍을 들고 있다. 또한 자료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저서를 내지 않고 차기 그 자체로 남겨 놓는 것들이 많아서, 후대에 이것들을 다듬어 저서로 내는 경우도 있었다. 즉, 청대의 차기는 이것저것 끄적거리 놓은 단순한

는데, 경전의 각 구절에서 의심나는 것 혹은 설명이 필요한 것들만을 뽑아서, 그것에 대해 세밀한 고증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찰기 형식의 주석은 전체적인 균형감을 중시하고 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고, 원전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은 원전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형식이 유행한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청대에 들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많은 주석들로 인하여, 원문과 주석을 통합한 형태로 전체를 해설해야 하는 주석서보다는 이전 주석의 허점을 국지적인 맥락에서 보충할 주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찰기 형식은 일정한 분량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출간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빠른 유통과 의견 교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³⁸⁾

장편이라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작업을 진행한 『논어정의』는 청대 다수의 ‘찰기’ 형식 주석서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논어정의』 집필을 위한 자료수집의 측면에서 보자면, ‘찰기’ 형식으로 작성된 수많은 주석들은 그 자체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 중복작업을 피할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대 찰기의 학술적 수준이 단순한 독서노트의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소의(疏義)를 작성할 때 관점이나 논리의 계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실제 『논어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청대 서적 중에서 찰기형식의 주석서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메모가 아니라, 초고를 작성한 후에 여러 번 다듬고 수정한 독서노트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저서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다. 김효신(2004), 「유월의 경전 주석에 대한 연구: 『논어정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14 참조.

- 38) 梁啟超(2010), 朱維鈞 校注, 『清代學術概論』: “後輩之謁先輩, 率以問學書爲贊。一有著述者則賸以著述—先輩視其可教者, 必報書, 釋其疑滯而獎進之。平輩亦然, 每得一義, 輒馳書其共學之友相商榷, 答者未嘗不盡其詞。凡著一書成, 必經贊友數輩嚴勘得失, 乃以問世, 而其勘也皆以函札。此類函札, 皆精心結撰, 其實卽著述也。此種風氣, 他時代亦間有之, 而清爲獨盛。” 양계초의 이 글은 청대 찰기 형태의 글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한 면을 보여준다.

진립은 “『논어정의』는 『논어』에 소를 달면서 빗질을 하듯 장구를 단정하게 가다듬고 논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진한(秦漢)부터 국조(國朝[淸])에 이르기까지 이전 학자들의 해설을 모두 모으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절충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것을 구하였다”³⁹⁾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 『논어정의』의 힘은 바로 ‘장편’이라는 방식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논어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적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일까. 『논어정의』의 정의 분량 중 대략 50% 정도는 인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높은 비중의 인용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증명을 갖추어야 한다’[言必有據, 論必有證]는 건가학풍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학이」과 「위정」을 대상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학이」에서는 38종 370여 편의 전적을 인용하고 있으며, 「위정」에서는 127종 170여 편의 전적을 인용하고 있다.⁴⁰⁾ 시기적으로는 선진시기부터 명청시기까지의 원전 및 관련 주소, 해설서들을 포괄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서적을 두루 인용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경사자집 중에서는 경부 관련서적의 인용비중이 가장 높으며, 문자혼고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건가학풍의 특성상 『설문해자』 등의 소학류 경전 또한 많은 비중으로 인용하고 있다. 사부와 자부는 비슷한 비율로 인용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높지는 않다. 단지 사부 중 정사류의 저작 인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부에 속한 서적은 모두 3종만을 인용하고 있다.⁴¹⁾

39) 陳立『論語正義序』“其疏論語也, 章句櫛比, 疏通知遠, 萃秦漢以來, 迄國朝儒先舊說, 衷以己意, 實事求是。”

40) 鄭敏芝(2011), 「『論語正義·學而』引書蠡測」, 樂山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3期; 付姝(2014), 「劉寶楠『論語正義·爲政』引書考論」, 語文學刊, 第1期.

그 가운데 당대인 청대 학자들의 저술의 인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이」와 「위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청대 저술의 수량만 헤아려도 총 55종이다. 특히 전장제도 등을 치밀하게 고증한 최근의 자료를 다량 인용하고 있다. 『논어정의』에서는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서명과 작자를 모두 기록하였지만, 출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자의 성명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용서적을 대략적으로 분류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논어정의』 「학이」와 「위정」에서 인용한 청대의 학술성과

순번	유형분류	인용자료
1	자의(字義)의 훈고(訓詁)	段玉裁 『說文解字注』, 王念孫 『廣雅疏證』, 王引之 『經傳釋詞』
2	고주(古注)의 집본(輯本)	臧庸 『論語鄭注』, 宋翔鳳 『論語鄭氏注』
3	교감 및 판본	翟灝 『論語考異』, 毛奇齡 『四書改錯』, 盧文弨 『經典釋文考證』, 王引之 『經義述聞』, 阮元 『十三經注疏校勘記』
4	문물과 제도의 고증	凌煥 『古今車制圖考』, 鄭珍 『輪輿私箋』, 凌曙 『四書典故叢』, 梁玉繩 『古今人表考』, 夏忻 『學禮管釋』, 陳懋齡 『經書算學天文考』, 宋翔鳳 『過庭錄』, 金鶚 『求古錄』, 孔廣森 『大戴禮記補注』, 閻若璩 『四書釋地』, 宋翔鳳 『四書釋地辨證』
5	경의(經義)의 해설	陳鱣 『論語古訓』, 毛奇齡 『論語稽求篇』, 臧琳 『經義雜記』, 惠棟 『九經古義』, 方觀旭 『論語偶記』, 孔廣森 『經學卮言』, 劉台拱 『論語駢枝』, 焦循 『論語補疏』, 臧庸 『拜經日記』, 錢大昕 『潛研堂文集』, 阮元 『論語解』·『論仁篇』·『數說』, 俞樾 『論語平議』, 包慎言 『論語溫故錄』, 宋翔鳳 『樸學齋札記』·『論語發微』, 劉逢祿 『論語述何』, 戴望 『論語注』,

41) 『文選』, 『楚辭章句』, 『潛研堂文集』.

순번	유형분류	인용자료
5	경의(經義)의 해설	凌鳴喈『論語解義』, 陳祖范『經咫』, 管同『四書紀聞』, 桂馥『羣經義證』, 武億『羣經義證』, 劉寶樹『經義說略』, 黃式三『論語後案』, 倪思寬『二齋讀書記』, 陳澧『東塾類稿』, 李允升『四書證疑』, 顧鎮鎮『虞東學詩』, 吳嘉賓『論語說』, 戴震, 江慎修, 汪中的說

『논어정의』의 인용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 자료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례(1810-1882)의 『동숙유고』(1849년 완성)는 유보남이 죽기 몇 해 전에 출간된 자료이고, 유일의 『군경평의』(1864년 완성, 1867년에 판각)는 유보남 사후 『논어정의』를 판각하기 직전에 출간된 저술이다. 이는 「후서」에서 유공면이 밝힌 바와 같이, 판각 직전까지 지속적인 수정과 보충을 가했다는 점을 뒷받침 해주는 사례이면서, 유보남이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는 권 17까지의 정의 역시 유공면의 많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이전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흡수하고 있으며, 특히 청대 학자들의 훈고와 고증을 광범위하게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황간의 『논어의소』, 형병의 『논어주소』, 주희의 『논어집주』가 여전히 『논어』의 주석 중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각 시대의 사상적·학술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논어정의』는 이러한 주해들에 대해서 근거자료의 인용과 함께 충분한 고증을 통해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았으며, 자신이 판단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설을 택하고 이를 확실하게 논증한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주해 중 비록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견해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인용하고 있다.

셋째, ‘문자훈고’, ‘사실고증’, ‘천발경의’(闡發經義)를 중시했던 청대 건가학풍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고대의 명물·제도·풍속·예절·역사적 사건·인명·지명에 대한 고증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이전 학자들의 주해를 비판하며 수정한 부분이 매우 많다. 또한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설을 모두 인용함으로써 자료를 보존하고 독자들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논어정의』는 광범위한 인용의 연쇄로 자신의 논리를 구축하고 전개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확실한 증거로 논리에 신뢰감을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독자들의 입장에서 인용으로 연결된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고, 풍부한 인용과 주석의 그 방대한 양으로 인해 책을 읽는 데에 장애를 줄 수 있다. 더욱이 근거로 인용한 서적들의 내용 역시 많은 경우, 또 다른 인용의 연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층차의 인용을 이해해야만 정확한 논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는 자칫 번쇄해져서 정의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5. 맺음말

청대 학자들은 고증학이라는 학문방법을 통해 고대의 문명과 사회의 실상을 철저하게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18세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학문방법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성과물의 축적은 학술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대의 학자들은 경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존 경전 텍스트의 혼란과 한계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첫째는 경전의 통행본에 대한 불만이었다. 18세기 후반부터 노문초(盧文弨), 단옥재, 고광기(顧廣圻), 완원 등에 의해 새로운 정본(定本)을 확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19세기 초반에는 『십삼경주소교감기』라는 거질의 정본을 완성하기에 이른다.⁴²⁾

둘째는 기존 주소본의 논리적 모순과 사상적 한계를 극복하여 고대 문명의 진정한 모습을 복원하려는 노력이었다. 고염무 이래 청대 학자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경전 해석에 대하여 찰기와 같은 글쓰기 형식을 이용하여 국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축적된 학술적 성과에 기반하여 기존의 경전 해석의 틀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재구축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초순의 『맹자정의』와 유보남의 『논어정의』이다.

이 논문은 유보남의 『논어정의』의 전체적인 저술과정과 구체적인 집필작업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19세기 초반부터 새로운 경전 소증이 활발하게 출현하였던 학술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유보남과 동료들의 결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소증의 출현은 단지 한 두 학자들의 분발에 힘입은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학계의 전반적인 문제의식의 응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찰기의 형식을 이용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국부적인 연구성과가 100여 년 이상 축적됨으로써 기존의 주소본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물질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부적인 문제의 제기와 해결에 유리한 찰기의 형식과 어떤 경전 전체에 대해 해석의 틀을 새롭게 세우는 소의 형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찰기와 같은 형식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풍부하게 모아놓는다고 해서 새로운 소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청대 학자들이 당송대에 성립한 소에 대해 품었던 불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서로 모순적이기까

42) 여기서 대표적 성과라 함은 『교감기』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원원의 『십삼경주소교감기』는 원래의 의도나 목표와 달리 기존 판본에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효신(2017), 「단고논쟁과 청대 교감이론의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지 한 여러 기술을 별다른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않은 채 번잡하고 조리 없이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이와 같은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집필 방법이 바로 장편의 작성이었다. 장편이란 경전의 해당 부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거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다시 조리에 맞추어 해석의 틀을 구축한 결과가 바로 『논어정의』의 집필 방법이자 청대 고증학의 기본적인 학술 방법이었다.

참고문헌

【자 료】

- 劉寶楠(1866), 『論語正義』, 東京: 文求堂.
劉寶楠 撰(1990), 高流水 點校, 『論語正義』, 北京: 中華書局.
趙爾巽 等撰(1974), 『清史稿』, 北京: 中華書局.
徐世昌 等編(2008), 沈芝盈, 梁運華 點校, 『清儒學案』, 北京: 中華書局.
上海中華書局排印本(1928), 『清史列傳』.
臺灣商務印書館排印本(1971), 『續修四庫全書提要』.
繆荃孫 纂錄(1910), 『續碑傳集』, 南京: 江楚編譯書局.
顧炎武 著(2006), 黃汝成 集釋, 栾保羣·呂宗力 校點, 『日知錄集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黃承吉(1967), 『夢陔堂文集』, 臺北: 文海出版社.
焦循 撰(1987), 沈文倬 點校, 『孟子正義』, 北京: 中華書局.
李慈銘(2004), 『越縵堂日記』, 揚州: 廣陵書社.
劉師培(2014), 『左盒外集』, 『劉申叔遺書』, 南京: 鳳凰出版社.
梁啟超(2010), 朱維錚 校注, 『清代學術概論』, 北京: 中華書局.
周子同 著(2010), 朱維錚 編校, 『周子同經學史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張舜徽(2005), 『清儒學記』, 『張舜徽集』, 武昌: 華中師範大學出版社.
_____ (2004), 『清代揚州學記』, 揚州: 廣陵書社.

【논 저】

- 김효신(2017), 「단고논쟁과 청대 교감이론의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4), 「유월의 경전 주석에 대한 연구: 『논어정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평(2016), 김영문 옮김, 『자치통감을 읽다』, 서울: 378.
鄭敏芝(2011), 「『論語正義·學而』引書蠡測」, 樂山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3期.
付姝(2014), 「劉寶楠『論語正義·爲政』引書考論」, 語文學刊, 第1期.

陳鴻森(1994), 「劉氏『論語正義』成書考」,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集刊 第3期.

龔霽芄(2006), 「『論語正義』的學術成就」, 『孔子研究』 3.

馮乾(2005), 「清代揚州學派簡論」, 『史林』 第2期.

원고 접수일: 2018년 4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8년 4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2일

摘 要

『论语正义』의成书过程与长编

金孝信*

众所周知,清代学者们用考据学的治学方法,来努力把握古代中国文明与社会的真正面目,尤其是十八世纪以来,许多有价值的研究成果陆续出现,中国的学术取得了辉煌的发展。在这背景下,有些学者对于儒家经典通行本的混淆与缺点,提出了很多根本性的问题。

从顾炎武、阎若璩等清初学者开始,清代学者们一般对以前的经典解释,用“札记”的写作方式来提起与解决学术上的问题,积累了许多学术成果。到了十九世纪,出现了新的学术潮流:有些学者根据考据学的研究成果,试图解开通行的经典解释体系,并重新建构新的观点和方法,其代表性的著作就是刘宝楠『论语正义』。

刘宝楠为了克服通行注疏本之繁琐无序,采取了“长编”的写作方法。“长编”就是一种收拾资料探索条理的工作。刘宝楠、刘恭冕父子二代首先编辑庞大的资料集『论语长编』后,才完成『论语正义』,其时间长达大约四十年。

* Lecture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